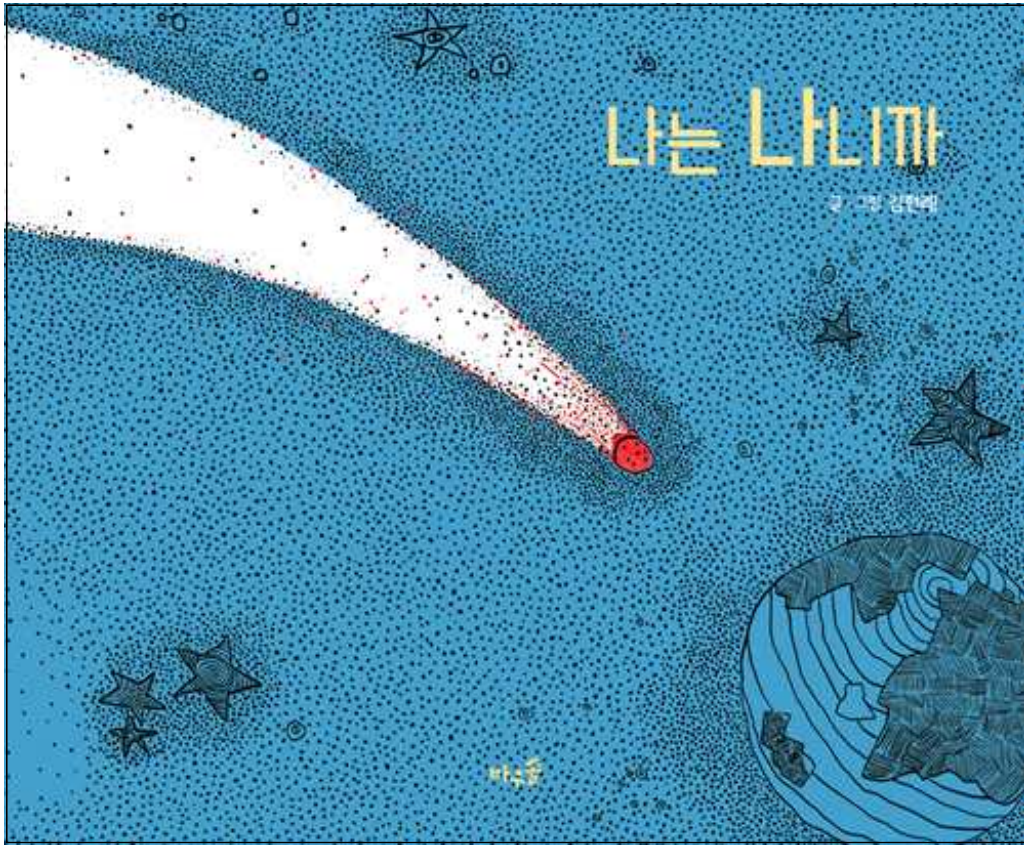


《나는 나니까》 독서지도안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 주는 그림책!

- 작가_ 김현례 글 · 그림
- 출판사_ 바우솔

본 독후 활동 자료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 배포하실 수 없습니다.

1. 도서 소개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 셀 수 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나 자신에게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져 본 적 있나요? 지금 내가 있기에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을까요.

《나는 나니까》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나는 나이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밀도 높은 이야기와 독특한 그림으로 전하는 그림책입니다. 공룡이 침대로 삼을 만큼 커다란 돌이 쪼이고 깎여 보일락 말락 티끌이 되기까지, 그 모습이 때마다 달라도, 어떤 역할을 해도 돌은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합니다.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름다우니까요.

착하고, 뛰어나고, 예쁘고, 영리하고...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자신을 놓아 보고, 가치에 서열을 매깁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걸까요? 크거나 작아도, 조금 모가 나도 나를 대신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양한 시공간을 오가며 펼쳐지는 단단한 돌의 이야기는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더불어 나와 다른 사람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마음가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바로 바라보며 장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칭찬하는 태도는 자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자양분입니다. 작가의 섬세하고 독특한 상상력이 담긴 책을 보며 독자는 나와 타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을 배울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세상과 마주하는 힘을 얻을 바랍니다.

2. 지도 개요

- 대상 : 초등 1~2학년
- 누리 과정 연계 : 1~2학년군 통합교과 <봄>, <여름>, <가을>, <겨울> 공통
 - 1학년 1학기 국어 7. 생각을 나타내요
 - 9. 그림일기를 써요
 - 1학년 2학기 국어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 7. 무엇이 중요할까요
 - 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 2학년 1학기 국어 1. 시를 즐겨요
 - 3. 마음을 나누어요
 - 8. 마음을 짐작해요
 - 11. 상상의 날개를 펴요
 - 2학년 2학기 국어 1. 장면을 떠올리며
 - 5. 간직하고 싶은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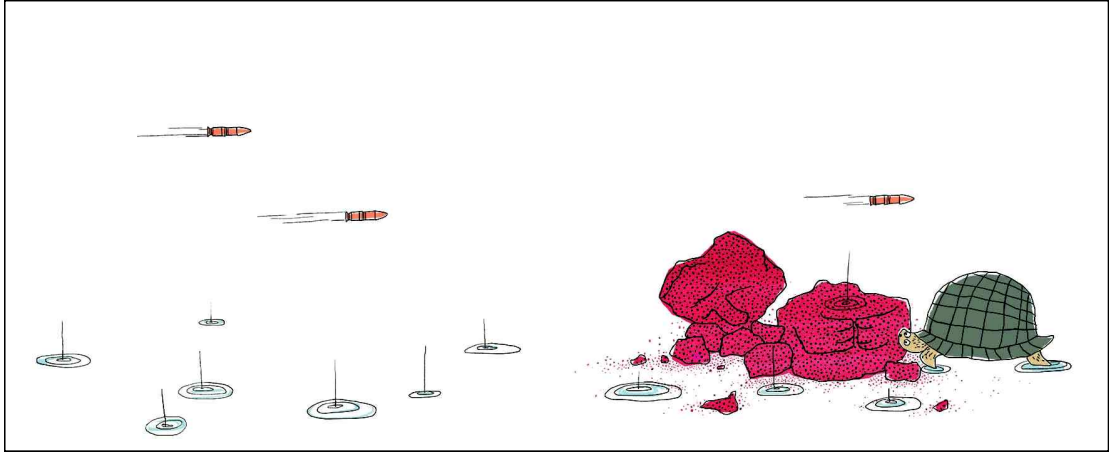
• 지도 요점 :

아주아주 먼 옛날 지구에 푹 떨어진 돌. 돌은 바람과 물, 뽀족한 것에 쪼이고 깎여 고인들의 한쪽 다리가 되기도 하고, 비밀 세계로 이끄는 문, 커다란 석상, 바윗돌, 맷돌, 담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돌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나요?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어떤 모습이 가장 좋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3. 책 이해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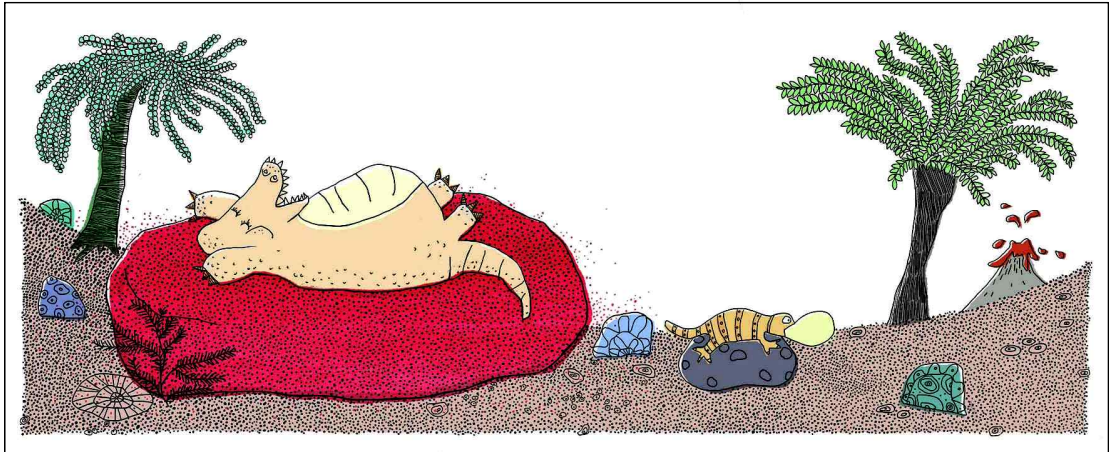
(1) 이 책의 주인공 '나'는 다음 중 누구인가요?



- ① 총알
- ② 공룡
- ③ 돌
- ④ 거북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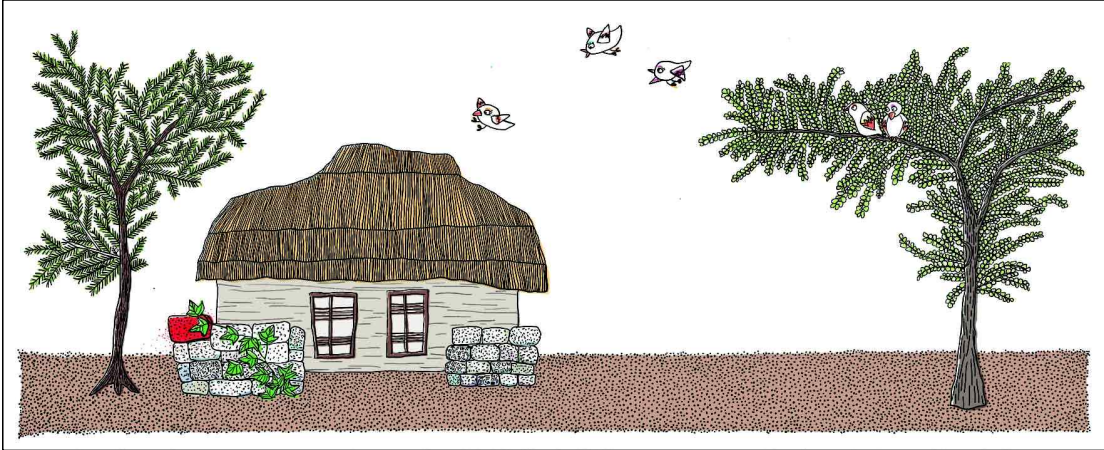
(2) 내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때, 나를 침대로 삼은 동물은 누구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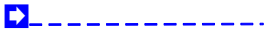
- ① 부엉이
- ② 곰
- ③ 박쥐
- ④ 공룡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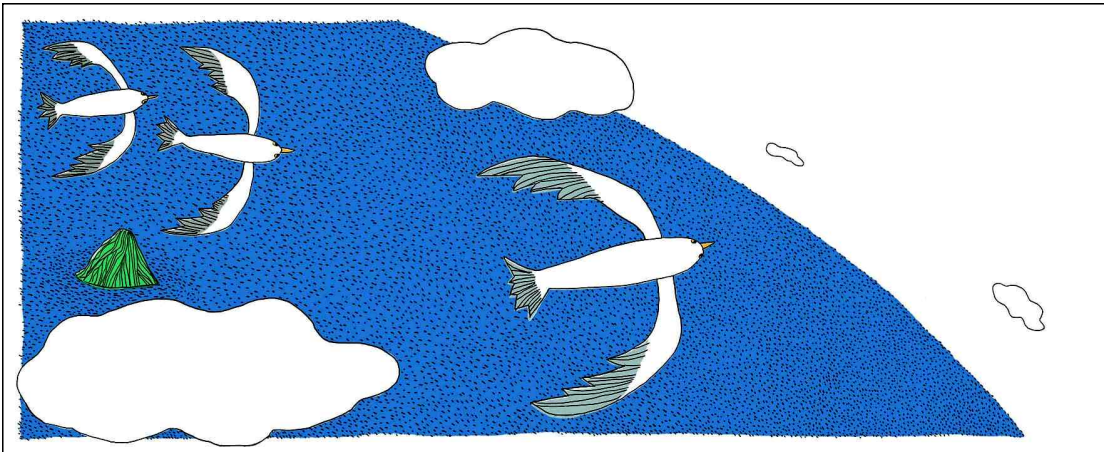
(3) 다음 중 이 책의 '나'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담쟁이넝쿨
- ② 담장
- ③ 티끌
- ④ 멧돌



(4) 작아진 내가 좋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 ① 몰래 숨을 수 있으니까
- ②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 ③ 눈에 띄지 않으니까
- ④ 귀여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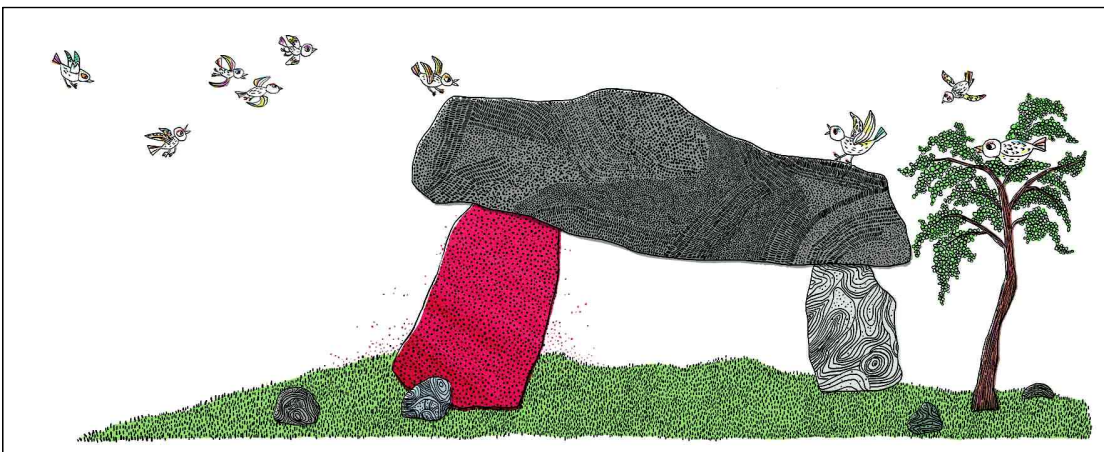


4. 확장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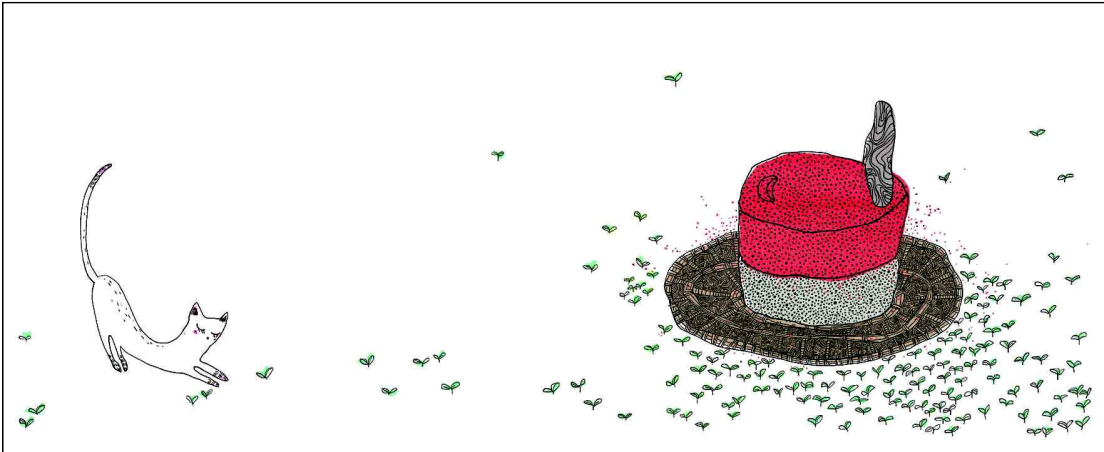
(1) 만약 여러분이 이 책의 주인공인 '돌'이었다면, 무엇이 가장 되고 싶은가요?



(2) 우리는 모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나' 아닐까요?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고, 가장 나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3) 돌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멋스러운 고인돌일 때보다도 짝꿍이 있는 맷돌일 때, 담쟁이넝쿨의 지지대가 될 수 있는 담장일 때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물결 덕분에 고와지고 고와져 먼지처럼 작아진 내가 좋지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정답]

책 이해하기

(1) ③ 돌 | (2) ④ 공룡 | (3) ① 담쟁이넝쿨 | (4) ②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확장활동

- (1) 침대만큼 커서 공룡을 만나보고 싶어요.
비밀 세계로 이끄는 신비로운 문이 되어 보고 싶어요. 등
- (2) 나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장난꾸러기예요.
나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등
- (3) 엄마 아빠와 맛있는 저녁을 먹을 때 행복해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행복해요. 등